

공무원 「育兒휴직제」 도입

1년 이내 허용 가족看病 등 「家事휴직」도 실시

黨政、내년 시행

정부와 民自黨은 27일 民自黨에서 黃榮夏총무 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黨政협의를 갖고 4급만 보직하는 중앙행정기관 주 요과장에 3급도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 제를 도입키로 했다.

정부와 民自黨은 특히 공무원휴직제도를 개선,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제를 도입해 산모보육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 고자할 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키로 했다. 또 가족의 질병가호를 위한 가사휴직제도 도입,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사

고나 중병에 간호를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키 로 했다. 다만 육아 가사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주지 않기로 했다. 黨政은 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 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, 가사및 육아휴직제를 내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.